

2018 청주시한국공예관 기획  
충북의 작가 초대전

# 撫戸 이용강 도예전

고려에서 조선까지, 다器제器

2018. 12. 18<sup>Tue</sup> - 2019. 1. 27<sup>Sun</sup>

청주시한국공예관 제1전시실



한국 공예관  
Korean Craft Museum

# 인사말

## 도예 외길에 선 명장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계승하고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도예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撫石 이용강 先生의 전시를 축하드리며, 귀한 작품으로 전통공예의 진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는 충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공예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예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매년 기획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용강 선생은 조선 500년 역사상 단절된 청자문화를 되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친 ‘해강 유근영 선생’에게 사사하였고, 일본에게 빼앗긴 도자기의 진수를 되찾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용강 선생의 도예 작품에는 무형(無形)의 내공으로 빚어낸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니다. 전통도예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평생을 오로지 전통 도예 작품 연구에 정진하셨습니다. 또한 작품에는 정성과 역사의 혼이 서려져 있습니다.

전통도예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옛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도예작품 감상과 함께 학문적 고찰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자유분방한 분청사기는 역사 속의 신비와 고고한 자태 속에서 작가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 숨쉬고 있습니다. 한줌의 흙이 도공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용강 선생은 우리 후손에게 참된 도자기 문화를 일깨워 주시고자 지금도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撫石 이용강 선생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세계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선생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장 박상언



# Greetings

---

## A master stand on the one way of art pottery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essence of traditional craft with precious works.

We're inherit our precious cultural assets to inform the importance of culture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exhibition of Mooseuk Lee Yong-Kang who has walked the one way of art pottery,

The Korean Crafts Museum in Cheongju City supports the creative activities of excellent craftsmen who are active in Chungbuk in order to open a new horizon of craft culture, we organize annual invitations.

Lee Yong-Kang studied under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aegang Yu Geun-Young who devoted his entire life to reviving the celadon culture that was separated in the 500 years of Joseon Dynasty.

His pottery works have a very high historical, artistic, and academic value created by intangibles.

He has devoted his life to studying traditional pottery works to continue the tradition of traditional pottery. In addition, the soul of the work is endowed with sincerity and history.

It will show us the practicality and beauty of traditional pottery, remind us of the preciousness of the old, and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pottery works and to have an academic review.

A simple, civilized and free-spirited in a Buncheong pottery in the history of mystery and arrogance, like that pottery is born again at the fingertips of the artist. Master Yong-Kang is trying hard to educate our descendants to cultivate the true culture of pottery.

Thank you again for your valuable work, Mr. Mooseuk Yong-kang, once again, I hope that the dream of the Master who wants to enhance the value of our culture to the world will be done soon.

Cheongju City Korean Craft museum Director **Park, Sang-Eun**

## 御挨拶

---

### 陶芸一筋に立つ名匠

私たちの貴重な文化資産を継承し文化の大切さを知ってもらおう陶芸の道を黙々と歩んできた撫石李龍江先生の展示を祝う申し上げ貴重な作品で伝統工芸の粋を見せ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

清州市韓国工芸館では忠清北道で旺盛に活動している優れた工芸作家の創作活動を支援して工芸文化の新たな地平を開くために毎年企画招待展を開催しています

李龍江先生は朝鮮500年の歴史の中で断絶された青磁を復活させることに一生を捧げた「海剛ユグンヨウン先生」に師事し日本に奪われた陶磁器の真髄を取り戻すために努力しました、李龍江先生の陶芸作品には無形の内面からもたらした歴史的・芸術的・学術的価値が非常に大きい伝統陶芸の脈を引き続ために生涯をひたすら伝統陶芸作品の研究に精進してきました、また作品には真情性と歴史の魂が隠れてます

伝統陶芸の実用性と美しさを見せてくれて、私たちに温故知新の大切さを教えてくれて陶芸作品鑑賞と学文的な考察の機会を与える事に違わない

素朴で庶民的である自由奔放な粉青沙器は歴史の中の神秘と孤高な姿の中で作家の指先で生まれ変わる息づいています一握りの土が陶工の手で新たに生まれ文化を成します李龍江先生は私たちの子孫に真の陶磁器文化を悟らせて与えようと今も後進の育成のために力を入れておられます

大切な作品を出品してくださった撫石李龍江先生にもう一度感謝し世界に私たちの文化の価値を高めようとする先生の夢が早く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みます

清州市韓国工芸館長 **朴相彦**

## 축사

---

문화예술의 도시, 청주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간행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도시로 공예분야 세계최고 · 최대 규모의 청주공예비엔날레를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예는 인류의 근본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삶의 변화된 패턴과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공예의 형태는 작가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는 매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가 추구하는 전통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적 자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초대작가, 이용강 선생님은 [고려에서 조선까지, 다器제器]라는 주제로 40일간 개최되는 전시를 통해 시대적 문화유산의 상징적 가치를 도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여년 도자작업에 매진하시고, 한결 같은 흙과의 호흡을 여과 없이 보여주신 이용강 선생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 초대에 응해주신 이용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장 **한범덕**

# Message

---

The city of culture and art ‘Cheongju’ is the historic city that published ‘Jikji’, the world’s oldest movable metal printed book, and has been hosting the world’s best and largest <Cheongju Craft Biennale> Art Festival since 1999.

Craft is the outcomes of life-changing patterns and processes that express the fundamental values of humanity in a variety of ways. This type of craft is based on the artist’s creativity to communicate with people.

Cheongju Korean Craft Museum selects local artists every year and presents traditional and creative cultural assets pursued by the artists.

Master Lee Yong-kang, the invited artist of this year, presents the symbolic value of cultural heritages of an era by means of pottery through this 40-day exhibition titled [Koryo to Joseon Dynasty, Tea cups & Ritual utensils].

I would like to compliment Lee Yong-kang for his 40 years of hard work on pottery and his constant breathing with the soil.

I would like to thank Master Lee Yong-kang for his accepting the invitation of the Cheongju Korean Craft Museum .

Mayor of Cheongju City **Han, Beum-Deuk**

# 祝辞

---

文化芸術の都市、清州は現存世界最高の金属活字本「直指」を出版した歴史的に由来が深い都市で、工芸分野で世界最高・最大規模の清州工芸ビエンナーレを1999年から開催しています。

クラフトは、人類の根本的価値をさまざまな方法で表現する人生の変化パターンとプロセスの結果です。これらの工芸の形態は、作家の創造性に基づいて、人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っています。

清州市韓国工芸館では毎年、地域で活動する作家を選定して、作家が追求する伝統的かつ創造的な文化的資産を披露しています。

今年の招待作家、李龍江先生は[高麗から朝鮮まで、茶器祭器]というテーマで40日間開催される展示を通じて時代の文化遺産の象徴価値を陶磁として示しています。40年陶磁作業に精進し、一途な土との呼吸を濾過なしに見せてくださった李龍江先生の苦勞に賛辞を送ります。

清州市韓国工芸館招待に応じてくださった李龍江先生に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清州市長 **韓凡恵**

## 무석 이용강의 도예 전승철학

인류는 어떤 사물이나 심지어 우주 공간에 널려있는 어떤 미세한 것에까지도, 제 나름대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초인간적인 숭고, 위대한 것을 외경하는 정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그 것을 인간화 하고 신앙·기원 및 예배함으로써 안심입명, 축복, 해탈, 구제를 믿기위한 봉사의 생활을 영위 할 때 그 관계에서 종교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근원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예술은 인간의, 특히 인간적이며 초동물적인 발전의 바로 초기에 나타나며 이때부터 비로소 예술은 시작 되었다고 본다. 예술은 인간적인 욕구를 재현하고 인간 만이 지닐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인 상징화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미의 모방에 그 자신이 가장 적합한 재료로 상념될 수 있는 미(美)의 객체에 그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형성 방법으로 표현 할 때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의 우수한 기능을 적시해 준 것은 도구가 아니라 상징 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장인(匠人)의 숨씨에서 모든 부분이 본성적으로 창조적 이거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예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오랜 경륜보다도 그 장인이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천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석 이용강의 도예 작업에서 남다른 특성은 바로 분청 태토라는 독특한 흙의 재질을 이용한 장인의 잠재된 창조력에 있다고 본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회흑색의 분청태토로 성형된 그릇 위에 정선된 백토를 표면에 분장(粉粧) 한 뒤에 잘 말려 초벌한 후 유약을 씌워 환원염(還元焰)에서 구워진 분장분청사기(粉粧粉靑沙器)를 우리는 줄여서 분청사기라 부른다. 우리나라 조선 초에 유행되어서 세계적인 도자 기법으로 민예적(民藝的)으로 승화시킨 분청사기는 활발하면서도 해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남다르게 생활 풍속 속에 예(禮)와 제의(祭儀)와 신성(神性)을 중요시하여 왔던 한국인의 심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분청 도자는 고려말 청자로부터 변모 발전하여 현저히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띠는 도자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기존의 상감기법 외에도 박지(剥地) 기법·귀얄기법·분장기법·철화기법·음각기법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제의적이고 민예적인 세련미는 다른 어느 민족의 예술에서는 좀처럼 맞볼 수 없는 신선한 분위기와 신비로운 감회(感懷)를 느끼게 한다. 그 감회는 바로 분청에서 느껴지는 점점 옛것이 되고 또 더 신비로와 지는 변신에서 더욱 예술성을 표출하게 된다. 그 형태와 어우러지는 색과 무늬는 우주의 비밀에 의거한다.

분청의 흰색 이라기보다는 회색과 흑갈색의 통일성과 조화로움은 인위적인 것에서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경지이다. 이러한 것을 「앙드레 말로」의 〈영원한 미(美)〉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술은 선택된 사물이 은닉하고 있는 진수를 발견하고 또 표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진수를 반영해 준다.”는 말과 일치한다.

예술가들에 있어서 예술작품이 이루어지면서, 물건 자체는 분야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이 되고 종교에 대해서처럼 어제는 예술과 무관한 대상이 된다.

천생연분(天生緣分)이란 말도 있지만 무석 이용강의 삶의 역사가 그 말과 매우 맞닿는다고 생각된다. 그가 태어난 곳과 가까이 계룡산록에서 분청이 많이 제작되고 파편이 출토된다. 그는 일찍부터 분청 작업에 몰두 했다.

그의 작품은 항상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차를 마시는 찻잔에서도 고대 의식을 위한 형태의 제의의 경건함을 느끼게 하고 차를 다리는 다로(茶爐)도 제기의 형태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기하학적이면서도 초자연성으로 넘치는 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형이상학적 연결이 눈에 띈다.

무석 이용강은 홍익전문대학에서 도예에 입문하였으며 해강청자에서 유근영선생에게서 사사하였고 오사카예술학교에서 도예를 전공 하였다. 그리고 귀국하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청주요」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영국 왕립 대학원 대학에 수학하러 다녀오기도 하였다. 1990년도부터 개인전을 통해 발표한 작품으로 만 보아도 그가 그동안 추구하여온 작품세계의 철학과 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번 전시 발표하는 작품에서는 다례(茶禮)를 위한 분청 도자기와 고대부터 종묘제례에 사용되어 온 제기(祭器)등 독특한 전승도예로 일관하여 우리 선조들이 전해주는 경건한 정신세계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따른 일념을 면면히 엿 볼 수 있다.

# Mooseuk Lee Yong-Kang's Philosophy of Pottery Tradition

---

Human beings have come to be awe of the superhuman nobleness, great things by giving them important meanings in their own ways, even of any tiny objects that lies in the universe. It is also believed that religion emerged in such relationship and became the source of the birth of art when the life of service was led to the belief of spiritual peace, blessings, nirvana, and salvation by humanizing it and worshiping it.

Art appeared at the very beginning of human, especially human and animal development, and I think it's only at this point that art has started. Art is based on symbolizing power, a very unique characteristic that only humans can possess and this ideal was achieved when he expressed himself in the most beautiful form in the objects of beauty, which can be conceived as the most suitable material for beauty.

Most of history tells that it was not a tool but a symbol that pointed out the superior functions of man. Not all parts of craftsmanship were creative or of aesthetic value by nature, as it is to this day.

Attaining the completeness of artistic achievement by using any given material is rather by genius of an artisan whose craftsmanship is latent inside than by his or her lifetime's experience.

In the pottery work of the Mooseuk Lee Yong-Kang, the unique characteristic is the potential creativity of artisans using the unique earthy material of the soil called Buncheong Clay.

We call the 'Buncheongsagi' is shortly saying a 'Buncheong', to explain this made by bowl at rich in iron grayblack clay lay on the white engobe after even drying next biscuit firing and put on the glaze after all reduction firing.

It can be said that Buncheong Sagi, which became popula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evolved into a world-class ceramic art, reflects the lively yet humorous beauty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been placing importance on etiquette, rites for ancestors, and divinity in their daily lives.

Buncheong pottery has transformed and developed from celadon ware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had distinctive featur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nlaying Technique, the ritual and civil sophistication naturally derived from Scratch Technique, Brush Stroke Technique, Iron Pigment Drawing Technique, and Intaglio Technique create a refreshing atmosphere and mystical sentiment rarely seen in any other national artworks. The feeling from Buncheong becomes more and more old and more mysterious, and more artistic in the transformation. The colors and patterns that match the form are based on the secrets of the universe.

The unity and harmony of gray and dark brown colors, rather than the white of Buncheong, are simply impossible to create in artificial techniqu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aying, "Art finds and expresses the essence of hidden things, all of which reflect the highest purity," as in <Eternal Beauty> by Andre Malraux.

As art works are done for artists, objects become objects that did not exist in the field and are now objects that are not related to art, just like religion.

There is a saying that "A match made in Heaven" but it is believed that the history of life of Mooseuk Lee Yong-kang is very close to this phrase. Near the foot of Mt. Geryong, the place where he was born, many of the Bun-Cheong was produced and its fragments were unearthed. He was preoccupied with Make Bun Cheong Pottery in his early age.

His pottery works are always pious. Even his tea cups make us feel the reverence of tea for ancient rituals, and his tea brazier does not go out of the form of the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The metaphysical connection of the universe is noticeable, not to mention the geometric and supernatural representation.

Mooseuk Lee Yong-Kang entered the pottery at Hongik College and studied with Master Yu Geun-Young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t Haegang Celadon, while he founded and operated "Cheongju kiln" i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he studied at The Art of Osaka University in Japan and majored in pottery.

He moved to Korea and New construction relocation Mooseuk Art Pottery. He also went to overseas study at the Royal college of Art.

Although his works, which was published in the 1990s through individual exhibitions, show the philosophy and nature of the art world he has been pursuing, this private exhibition shows that his unique achievements or works such as Buncheong pottery for tea ceremony and the utensils, which have been used in Royal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reflect the spiritual world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nded down by our ancestors.

# 撫石李龍江陶芸伝承哲学

人類はどのようなものも含め、さらに宇宙空間に散在しているいくつかの微細なものまでも、その物なりに重大な意味を付けることで超人的な崇高と偉大なことを敬畏する定義に至った。

また、そのことを人間化させ、信仰・祈願と礼拝することで、安心立命、祝福、解脱、救済を信じるための奉仕の生活を営むことと、その関係で、宗教が出現するようになり、芸術が誕生することができた源に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

芸術は、人間の、特に人間で超動物的な発展のすぐ初期に現れ、この時から始めて芸術は開始されたと見ている。芸術は人間的な欲求を再現して、人間だけがもつことが出来る非常にユニークな特性である象徴化する能力に基づいており、それ以上は美の模倣にその自身が最適な材料で想念することができる美のオブジェクトにその自身が最も美しい形成方法で表現する時に成し遂げられるのだった。

ほとんどの歴史の中で見たときに、人間の優れた機能を摘示してくれたのは、ツールではなく、象徴だった。これまでもそうだが、職人（匠人）の腕前で、すべての部分が本能的に創造であるか、美的価値を持っていることではなかった。任意の材料を用いて芸術の域をなすのは、長い競争よりも、その職人が内面に潜在している天才性にあるとすることができる。

撫石李龍江氏の陶芸作業で格別な特性は、すなわち粉青胎土と呼ばれる独特な土の材質を用いた職人の潜在的な創造力にあると思う。鉄分が多く含まれている灰黒色の粉青胎土で成形された器面の上に精選された白化粧土を表面に粉粧した後によく乾かして素焼した後、釉薬を掛けて還元火焰で焼かれた粉装灰青沙器を、私たちは、略して粉青沙器と呼ぶ。韓国朝鮮の初めに流行になって、世界的な陶磁技法で民芸的に昇華させた粉青沙器は間違ながらもユーモラスな美しさがあり、また、格別の生活風俗の中に禮と祭儀と神性を重視してきた韓国人の心を多く反映してい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

粉青沙器は高麗末期の青磁から変貌発展して著しく異なるユニークなパターンに続く陶器が誕生することになった。既存の象嵌技法のほか、剥地技法や刷毛目技法・粉装技法・鉄画技法・彫り込み技法などにより自然に染み出るの民芸的な洗練さは、他のどの民族の芸術ではなかなか味わえない新鮮な雰囲気と神秘的な感懐を感じさせる。その感懐はすぐに粉青で感じられるますます古いものになって、また、より神秘となる変身でさらに芸術性を表出することになる。その形態と交わる色と柄は、宇宙の秘密に基づいている。

粉青の白というよりはグレーと黒褐色の統一性と調和は、人為的なものでは到底作り出せない境地である。これらのことを「アンドレ・マルロー」の「永遠の美」で言うように、「芸術とは選ばれたものが秘匿している真髄を発見し、また表現するのは、すべてのものが最高の真髄を反映してくれる。」という言葉と一致している。アーティストにとって芸術作品が行われながら、物自体は分野が存在しなかった対象となって宗教についてのように、今さら芸術とは無関係な対象となる。

天生縁分という言葉が撫石李龍江氏の生活の歴史その言葉と非常に接すると考えられる。彼が生まれたところと近い鷄龍山で粉青が多く製作されて破片が出土される。彼は早くから粉青作業に没頭した。彼の作品は、常に敬虔さを感じさせるものである。お茶を飲む湯呑みも古代の儀式のための形態の祭儀の敬虔さを感じさせる、お茶の湯を沸かす茶爐も祭器の形から抜け出せない。幾何学的でありながらも超自然性にあふれる型を示し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し宇宙の形而上学的な接続が目立つ。

撫石李龍江は弘益カレッジで陶芸に入門した後、青磁研究所で無形文化財 海剛-柳根榮先生から師事し、忠清北道清原郡の「清州窯」を設立し運営した また、そのなかで大阪芸術学校に留學し陶芸を専攻した、そして帰国し撫石陶芸研究所新築移轉してから英国王立大学院大学 (R.C.A)の修學に行ってくることもした。1990年度からの個展を通して発表した作品でだけを見ても、彼がこれまで追求してきた作品世界の哲学の傾向を十分に知ることができますが、今回の展示発表する作品では、茶道のための粉青陶磁器と古代から宗廟祭礼に使用されて来た祭器などのユニークな伝承陶芸に一貫して私たちの先祖が伝えてくれる敬虔な精神世界と無形文化遺産の伝承による一念を脈々と飴見ることができる。

然園-林永周 (前文化財傳文委員、韓国伝統工芸美術館長を歴任)





분청철화문대호, 분청토  
粉靑鐵畵紋大壺, 粉靑土

Bun Cheong Iron Pigment Big Jar, Bun Cheong Clay  
38×38×38cm

분청큰 달항아리, 분청토  
粉靑月形大壺, 粉靑土  
Moon Shaped Big Jar, Bun Cheong Clay  
41×41×41cm,





백자흑상감화문대호, 백자토  
白瓷黑象嵌花紋大壺, 白瓷土  
White Porcelaine Black Pigment Big Jar, White Porcelaine Clay  
40×40×40cm







나의 카라, 백자점토, 흑상감  
私カラ, 白瓷粘土 黒象嵌  
My KARA, White Porcelain Put on Black Clay  
21×21×35cm





백자흑상감대접시, 백자토  
白瓷黑象嵌大皿, 白瓷土  
White Porcelaine Black Pigment Plate, White Porcelaine Clay  
50×50×9cm





종묘제례제기 세트,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一式,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Set, Bun Cheong Clay



종묘제례제기 쌍개,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雙蓋,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DU, Bun Cheong Clay  
40×30×25cm





**제기** : 조선조 왕실용 종묘제례 제기와 양반 사대부 백자 제기를 재현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고증 문헌을 바탕으로 규격을 정했으며 유기로 만들어진 유물을 도자기로 치환하여 형태와 문양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 무석 이용강

**Ancestral rites ware (Jegi)** : Have reenacted the Royal Ancestral rites ware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White porcelain Ancestral rites ware used by the nobility called 'Yangban'. Based 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 Gyujeongguk Research Institute's reference books, the standards had been set, and those relics made of brass materials have been reproduced by replacing them with pottery and using their shapes and patterns. - Mooseuk Lee Yong-Kang

**祭器** : 朝鮮王室用宗廟祭禮祭器と兩班士大夫の白磁祭器を再現した。ソウル大学奎章閣と韓國学中央研究院の研究考証文献をもとに規格を定めており、鎡器で作られた遺物を陶器に置換して形と文様を参照して製作した。-撫石 李龍江

종묘제례제기 궤,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簋,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GWE, Bun Cheong Clay  
40×30×25cm







종묘제례제기 보,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簠,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BOU, Bun Cheong Clay  
33×40×26cm



종묘제례제기 쌍보,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雙簠,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BOU pair, Bun Cheong Clay  
33×40×26cm







종묘제례제기 두,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豆,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DU, Bun Cheong Clay  
16×16×17cm









종묘제례제기 번,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甁,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BYEON, Bun Cheong Clay  
17×17×17cm









종묘제례제기 쌍형,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雙罍,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HYEONG pair, Bun Cheong Clay  
17×17×19cm



종묘제례제기 4좌,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四爵,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JAG Four, Bun Cheong Clay  
11×11×14cm





종묘제례제기 회준,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犧尊,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HEE JUN Cattle Shaped Sacred Pot, Bun Cheong Clay  
19×32×25cm





종묘제례제기 분청회준,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粉靑犧尊,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HEE JUN  
Cattle Shaped Sacred Pot, Bun Cheong Clay  
19×32×25cm

종묘제례제기 분청상준, 분청토  
宗廟祭禮祭器 粉靑象尊, 粉靑土  
Royal rites pottery HEE JUN  
Elephant Shaped Sacred Pot, Bun Cheong Clay  
18×34×26cm



백자제기세트, 백자토  
白瓷祭器一式, 白瓷土  
White Porcelain Rites Table Ware Set, White Porcelain Clay

백자향로, 주병제상, 백자토  
白瓷香炉, 酒瓶祭床, 白瓷土  
White Porcelaine Incense burner, Bottle Table, White Porcelaine Clay







백자팔각쌍촛대, 백자토  
白瓷八角双燭台, 白瓷土  
White Porcelaine Octagonal Candlestick pair, White Porcelaine Clay



백자제기식기, 백자토  
白瓷祭器食器, 白瓷土  
White Porcelaine Rites Table Ware,  
White Porcelaine Clay

백자제기쌍잔, 백자토  
白瓷祭器双盏, 白瓷土  
White Porcelaine Rites Wine cup pair,  
White Porcelaine Clay

백자제기탕기, 백자토  
白瓷祭器双汤器, 白瓷土  
White Porcelaine Rites Soup bowl pair,  
White Porcelaine Clay





계룡산분청어문주병, 분청토  
鷄籠山粉靑魚紋酒瓶, 粉靑土  
Bun Cheong Fish Pattern Bottle, Bun Cheong Clay  
17×17×31cm

계룡산분청당초문주병, 분청토  
鷄籠山粉靑唐草紋酒瓶, 粉靑土  
Bun Cheong Arabesque Pattern Bottle,  
Bun Cheong Clay  
17×17×31cm



백자주병, 백자토  
白瓷酒瓶, 白瓷土  
White Porcelaine Wine Bottle,  
White Porcelaine Clay  
14×14×29cm







**다기** : 고려시대는 불교 융성국가로서 모든 의례와 제례를 차(茶)로 봉행했기에 다기가 발달한 국가였으나 조선조에 들어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에 의해 다기는 쇠퇴하고 주기(酒器)가 유행하였기에 고려조 다기의 쓰임에 유의하여 현대적 재해석으로 쓰기에 편리한 다구를 제작하였다. - 무석 이용강

**Tea ceremony ware (Dagi)** : During the Goryeo dynasty with Buddhism being flourished and all Buddhist rituals and ceremonies being held as tea ceremonies, the tea ware became to be developed. However, in the Joseon Dynasty governed based by Confucianism repressing Buddhism the liquor wares were prevalent. Based on the use of the tea ceremony wares of the Goryeo dynasty these tea tools, convenient to use, have been made as part of their modern interpretation. - Mooseuk Lee Yong-Kang

**茶器** : 高麗時代は仏教が栄えた国家としてすべての儀式と祭礼をお茶で奉行したので茶器が発達した国であったが、朝鮮朝に入り抑佛崇儒の政策によって茶器は衰退して酒器が流行したので高麗茶器の使い方に元ついで現代的の再解釈して使いに便利な茶道具を製作した。-撫石 李龍江





찾자리스케치  
茶席素描, Tea Place Sketch





백자찻주전자, 백자토  
白瓷茶藥缶, 白瓷土

White Porcelaine Tea Water Pot, White Porcelaine Clay



백자다기세트, 백자토  
 白瓷茶器一式, 白瓷土  
 White Porcelaine Tea Set, White Porcelaine Clay



분청담방문다기세트, 분청토  
 粉引茶器一式, 粉靑土  
 Bun Cheong Dumbung Tea Set, Bun Cheong Clay







분청귀얄문다기세트, 분청토  
粉靑刷毛目茶器一式, 粉靑土  
Bun Cheong Guiyal Pattern Tea Set, Bun Cheong Clay



녹유다기세트, 백자토  
 綠釉茶器一式, 白瓷土  
 Green Glaze Tea Set, White Porcelaine Clay



녹유연지차다구, 백자토  
 綠釉蓮池茶具, 白瓷土  
 Green Glaze Lotus Flower Tea Set, White Porcelaine Clay







분청귀얄문다구, 분청토  
粉靑刷毛目茶具, 粉靑土  
Bun Cheong Guiyal Pattern Tea Set, Bun Cheong Clay

청자양류문병, 청자토  
靑瓷楊柳紋瓶, 靑瓷土  
Celadon Willow pattern Bottle, Celadon Clay  
12×12×31cm







녹유다기 & 꽃잔, 백자토  
綠釉個人茶器 & 花盞, 白瓷土  
Green Glaze Tea Set & Flower Cup, White Porcelaine Clay



녹유개인다기, 백자토  
 綠釉個人茶器, 白瓷土  
 Green Glaze Personal Tea Set, White Porcelaine Clay



백자개인다기, 백자토  
 白瓷個人茶器, 白瓷土  
 White Porcelaine Personal Tea Set, White Porcelaine Clay





황금결정유칫자리, 분청토, 백자토  
黃金結晶釉茶席, 粉靑土, 白瓷土  
Gold Crystal Glaze Tea Place, Bun Cheong & White Porcelaine Clay

황금결정유다기, 백자토  
黃金結晶釉茶器, 白瓷土  
Gold Crystal Glaze Tea Set, White Porcelaine Clay







말차나눔그릇, 혼합토  
抹茶分配器, 混合土  
Green powder Tea Decanter, Mixed Clay



녹유다구, 백자토  
綠釉茶具, 白瓷土

Green Glaze Tea Ceremony Set, White Porcelaine Clay









분청전기다로세트, 분청토  
 粉靑電氣茶炉一式, 粉靑土  
 Bun Cheong Electric Tea Brazier Set, Bun Cheong Clay

분청전기소다로세트, 분청토  
 粉靑電氣小茶炉一式, 粉靑土  
 Bun Cheong Electric Little Tea Brazier Set, Bun Cheong Clay

분청전기다로, 분청토  
 粉靑電氣茶炉, 粉靑土  
 Bun Cheong Electric Tea Brazier, Bun Cheong Clay  
 40×40×30cm





분청어문연지, 분청토  
粉靑魚紋蓮池, 粉靑土  
Bun Cheong Fish Pattern Lotus Tea Bowl, Bun Cheong Clay  
33x33x15cm



백자흑상감연지, 백자토  
白瓷黑象嵌蓮池, 白瓷土  
White Porcelaine Black Pigment Lotus Tea Bowl, White Porcelaine Clay  
34×34×20cm

분청어유문연지, 분청토  
粉靑魚遊紋蓮池, 粉靑土  
Bun Cheong Fish Pattern Lotus Tea Bowl, Bun Cheong Clay  
44×44×18cm





흑유낙엽문다완, 혼합토  
黑釉落葉紋茶碗, 混合土

Black Glaze Leafs Pattern Green Tea Bowl, Mixed Clay  
16×1×69cm

메밀색다완, 혼합토  
蕎麦茶碗, 混合土  
Buckwheat Color Green Powder Tea Bowl, Mixed Clay  
16×1×69cm







유빙문다완, 혼합토

遊氷紋茶碗, 混合土

Drift ice Pattern Green Powder Tea Bowl, Mixed Clay

15×15×8cm



정호다완, 혼합토

井戸茶碗, 混合土

Yi do Green Power Tea Bowl, Mixed Clay

15×15×8cm

정호다완, 혼합토

井戸茶碗, 混合土

Yi do Green Power Tea Bowl, Mixed Clay

15×15×8cm





말차차자리  
抹茶茶席, Green powder Tea Seat

덤빙다완, 분청토  
粉引茶碗, 粉靑土  
Dumbung Green powder Tea Bowl,  
Bun Cheong Clay  
14×14×8cm

귀얄문다완, 분청토  
刷毛目茶碗, 粉靑土  
Guiyal Green powder Bowl,  
Bun Cheong Clay  
14×14×8cm

인화분청다완, 분청토  
印花粉靑茶碗, 粉靑土  
Stamp Pattern Green powder Tea Bowl,  
Bun Cheong Clay  
14×14×8cm,

덤빙다완, 분청토  
粉引茶碗, 粉靑土  
Dumbung Green powder Tea Bowl,  
Bun Cheong Clay  
14×14×8cm





분청말차다구, 분청토  
粉靑抹茶茶具, 粉靑土  
Bun Cheong Green powder Tea Ware, Bun Cheong Clay





분청철화문다식기, 분청토  
粉青鐵畫紋茶食器, 粉青土  
Bun Cheong Iron Pigment Big Jar, Bun Cheong Clay  
23×23×6cm



개관식 開館式 Exhibition Opening

---









# 무석 이용강 撫石 李龍江

Lucian LEE, Yong-Kang



우)2813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297-7

E-mail mooseuk@naver.com

무석도예연구소 043-216-9991

## 학력

1980년 서울홍익전문대학 요업과 졸업  
1992년 오사카 예술 대학교 공예과 도예 전공 졸업  
1992년 일본문부과학성 박물관 큐레이터 자격 취득  
2006년 영국 Royal College of Art MPhil / PhD 과정 수학

## 경력

1983 - 86년 무형문화재 해강 유근영 선생 사사  
1987년 1월 대한민국 충북 청원군 청주요 설립  
1988년 9월 대한민국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특선  
1989년 3월 일본성공회 동경교구 문화원 초청 개인전  
1990년 12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돌이 갤러리 개인전  
1991년 9월 미국 LA St. Mary's 성공회성당 문화센터 개인전  
1993년 3월 대한민국 청주 학천갤러리 개인전  
1994년 1월 중국 쓰촨성 청두시 사천 미술청 초대 개인전  
1995년 9월 일본 돗토리시에서 청주시 교류기념 시민회관 개인전  
1996년 3월 일본 가와사키시 우라센케초청 국제 교류 센터 개인전

1998년 5월 무석도에 신축 이전 개관 기념 전시회 개최  
2001년 9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원 한국공예 '화전시회'  
2002 - 03년 국립 충북 대학교 평생 교육원 도예 전임 강사역임  
2003년 9월 충북대학교 개신 문화관 불로초예술제 도예지도 교수  
2004년 1월 청주시 율량동 무석도에 이전 개관 기념전  
2006년 2월 제4회 『London Korean Festival 2006』 전시 기획 참여  
(영국 디자인 뮤지엄 "Korean Ceramic Exhibition) 기획  
2007년 10월 중소기업 이업종교류 도자기 해금 융합 성공사례 선정 등록  
2008년 2월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 경진대회  
기술 융합 중소기업청장 표창  
2010년 12월 사우디 아라비아 왕실 문화 교류 초대 개인전  
2011년 11월 대한민국 신 미술 대전 특별상 초대 작가상 수상  
2015년 3월 충북 교육청, 충청일보 주관 러시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연구 파견  
2015년 4월 충북 국제 의료관광 명예 홍보대사 임명  
2016년 1월 한국무형문화유산 도자기 명장 지정 (2016-0109호)  
2018년 11월 (사) 한국 무형 문화 예술 교류 협회 이사장 취임

## Level of Education

1980	Hong Ik College in Seoul,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Ceramics..
1992	The art of Osaka University in Japan. Graduated from Craft Department.
1992	Japan Ministry of Educational Recognized Became a Museum Curator.
2006	Royal College of Art MPhil/PhD course Ceramic & Glass Department Study.

## Career

1983-85	Hea Gang Celadon Reserch Institute Studied Under Master Yu Kun-You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1987	Established Ceramics workshop 'Kiln of Cheong-Ju' in Korea.
1988	Awarded Special Recognition at the Korean National Craft Competition.
1989	Private Exhibition at Anglican Cathedral Cultur Centre in Tokyo Japan.
1990	Private Exhibition at Gallery Consulate General of Korea in Osaka Japan
1991	Private Exhibition St. Mary's Episcopal Church Cultural Centre in L.A U.S.A.
1994	Private Exhibition 'Thu Chun National Gallery' in Cheong Doo China
1996	Private Exhibition 'Kawasaki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in Japan
1998	Establishe Ceremony Exhibition 'Mooseuk Art Pottery' in Cheong Ju Korea

2001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with Exhibition 'WHA' at Korean Embassy Cultural Centre in Tokyo Japan
2002-03	Lecturer,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re
2003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Ceramic Professor of B.R.C Art Festival
2004	Opening Ceremony Exhibition 'MooSeuk Art Pottery Gallery' in Cheong-Ju
2006	Participate in exhibition planning [The 4th London Korean Festival] in The British Design Museum '10peoples Korean Ceramic Exhibition'
2007	Registered as a successful case for the Fusion of ceramics and musical instrument awarded by the President of SME Promotion Corporatio.
2008	S.M.B.A Administrator award for Technology convergence competition.
2010	Invitation Solo Exhibition of Royal Cultural Exchange in Saudi Arabia.
2011	Special Prize of Invited Artist for 'Korean New Art competition Award'
2015	Chung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Chungcheong dailynews With Dispatch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vestigation at Russia.
2015	Appointed a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in Chungbuk-Do
2016	Master selection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ramics Arts Division
2018	Inauguration of the Chairman 'The Art Exchang Association of Korea Intangible Cultur'

## 学歴

1980年	弘益専門大学校窯業科卒業
1992年	大阪芸術大学校工芸科陶芸専攻卒業
1992年	日本文部省令博物館学芸員資格取得
2006年	英國Royal College of Art MPhil/ PhD コース修学

## キャリア

1983-86年	無形文化財(人間國寶)海剛柳根榮先生に師事
1987年1月	大韓民国忠清北道清原郡に清州窯設立
1988年9月	大韓民国全国工芸品コンテスト特選
1989年3月	日本聖公会東京教区院招請個展
1990年12月	駐大阪大韓民国総領事館ホドリギャラリー個展
1991年9月	米国LA St.メリーアングリカン教会文化センター個展
1993年3月	大韓民国清州鶴川ギャラリー個展
1994年1月	中国四川省成都市、四川美術庁招待個展
1995年9月	日本鳥取市、清州市交流記念市民館個展
1996年3月	日本川崎市国際交流センター個展
1998年5月	撫石陶芸新築移転開館記念展示会の開催

2001年9月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文化院韓国工芸「華」展
2002-03年	国立忠北大学校生涯教育院陶芸専任講師務め
2003年9月	国立忠北大学校改新文化館不老草祭陶芸指導教授
2004年1月	清州市撫石陶芸新設開館記念展
2006年2月	第4回「London Korean Festival 2006」展示企画参加 (英国デザインミュージアム "Korean Ceramic Exhibition)企画
2007年10月	中小企業異業種交流陶磁器楽融合成功事例選定登録
2008年2月	中小企業異業種交流コンテスト技術融合-中小企業長官表彰
2010年12月	サウジアラビア王室文化交流招待個展
2011年11月	大韓民国新美術大展特別賞招待作家賞受賞
2013年2月	大韓聖公会大田教区清州壽洞聖堂司祭会長就任
2015年3月	忠北道教育庁、忠清日報主管ロシアの韓国独立運動史の調査派遣
2015年4月	忠清北道国際医療観光名誉広報大使に任命
2016年1月	韓国無形文化遺産陶磁器名匠指定2016-0109号
2018年11月	(社)韓国無形文化藝術交流協合理事長就任



2018 청주시한국공예관 기획

충북의 작가 초대전

# 撫石 이용강 도예전

고려에서 조선까지, 다器제器

2018. 12. 18Tue — 2019. 1. 27Sun

청주시한국공예관 제1전시실



발행일 2018. 12  
발행처 청주시한국공예관  
발행인 박상언 / 청주시한국공예관장  
학예실장 안승현  
학예연구사 고영찬  
전시지원 이동호, 신금재, 이소민  
행정지원 성연주  
출판인쇄 디자인팩토리  
사진 조일현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청주시한국공예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한국공예관 2018

Copyright in the images and the text here belongs to respective Korean Craft Museum.  
Anyone who wishes to use these images or text must obtain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  
© Korean Craft Museum 2018

청주시한국공예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7 T. 043-268-0255, F.043-268-0256

KOREAN CRAFT MUSEUM  
Jikji st. 717, Heungdeok, Cheongju, Chungbuk R.O.K 28471 T.+82-43-268-0255, F.+82-43-268-0256  
[www.koreacraft.org](http://www.koreacraft.org)

